



Marp

# 좋은 개발자가 되려면

좋은 개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

잉여코더

<https://junho85.pe.kr/>

# 소개

정원사들 시즌2~6 참여  
정원사들 출석부 운영  
내려놓기 중

# 고민

개발이 좋아서 개발자가 되었지만  
어느덧 14년 차  
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 
내가 좋은 개발자가 맞을까?  
아닌 거 같다. 잘 하는게 없는 거 같다.  
어떻게 해야 할 까?

# 좋은 개발자란 무엇인가?

주변을 둘러보자

# 코딩도 잘 하는 개발자 + a (실력)

저 개발자는 코드를 잘 짜고 아는 것이 많다. 벌써 다 짰다고?

언어의 철학, 구조에 대한 이해, 도구 사용, 사이드 프로젝트, 게다가 지식을 배운다

나도 될 수 있을까?

책, 컨퍼런스, 강좌 수강, 커뮤니티, 블로그

#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개발자 (커뮤니케이션)

고객: a를 만들어 주세요.

개발자: 네 여기 만들어 왔습니다. (b를 내민다)

고객: ???

배달의 민족 김범준 영상

때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정책을 바꾸고 프로그래밍을 안 하는 것일 수도 있다.

풀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.

# 일을 잘 하는 개발자 (태도)

저 사람은 일을 잘 해낸다.

나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이미 그의 영향력은 서비스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고 있다.

잘 몰라도 문제에 집요하게 파고 들어서 해결해 내고야 만다.

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요?

관심과 애정을 가지면 됩니다.

태도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. 아직도 잘 모르겠음.

# Drefus Model

코딩실력, 태도

이 정도 되면 이미 인정 받는 개발자

Drefus Model



# 코딩 잘 하고 태도가 좋으면 좋은 개발자일까?

인정 받는 개발자

백기선님의 고민 상담 영상

그런데 정작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다면?

가정에 충실하려고 노력

# 코딩 잘하고 태도도 좋고 가정에도 충실 하다 면?

그런데 자신의 건강이 망가져 버렸다면?

최근 몇 년간 건강에 문제들이 생기고 있음

운동을 해보고 있음

# 코딩 잘하고 태도도 좋고 가정에도 충실하고 건강도 하다면?

그런데 정작 내가 만들고 싶었던 것을 만들었는가?

눈 감을 때 후회가 없을까?

#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은 뭐지?

지금 회사에 입사 할 당시. 나는 보이는 것이 좋아. Front End 개발자를 하고 싶다.

백엔드 개발자 하세요.

그렇게 서버 개발만 해오고 있습니다.

그런데 학창 시절에는? 어릴적에 하고 싶었던 건? 게임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.

# 정리

코딩을 얼마나 잘 하나요?

커뮤니케이션 역량은? (문제를 잘 이해하고 일하나요?)

태도가 좋나요? (일을 잘 해내고 있나요?)

가정에 충실한가요?

건강한가요? (자신을 잘 챙기나요?)

내가 진정 하고 싶었던 일을 했나요? 자아실현 했나요?

